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아시아에 급증
-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경제 발전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도시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메가시티의 문제는 범위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제화와 함께 지역 공통의 위기로 변모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도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싱크탱크 설립
- 개별 기관이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연대의 필요성 증대

1.1.2 연구의 목적

- 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협력 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모델 구축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메가시티 현황 분석
- 아시아 메가시티 도시 문제 분석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분석
- 도시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모델 포럼 개최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2 주요 연구결과

2.1 메가시티 현황

- 전 세계 메가시티는 40개로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가 12개, 500만 이상의 도시가 28개이며, 서울은 인구 10,575천명으로 11위
- 아시아 메가시티는 26개로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가 9개, 500만 이상의 도시가 17개이며, 서울은 8위이고, 고도성장에 이른 도시와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님.

2.2 아시아 메가시티 도시문제

- 짧은 시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아시아 메가시티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자연 발생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에 직면
 - 자연발생적인 위험 : 지진 등의 자연 재해,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방사능 위험 등
 - 인위적인 위험 : 소득의 양극화, 불안의 일상화, 사회 정의, 사회적 신뢰 등 메가시티 시민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위험
- 서울은 핵폐기물과 원전이 근접하여 방사능에 대한 위험, 베이징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도쿄는 지진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어 메가시티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상이
- 그러나 메가시티 문제의 영향은 도시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아시아 메가시티들은 같은 종류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시 위험을 공유

표 1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위험 인식 정도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자연발생적 문제				
지진	3.4	3.22	4.52**	3.71
방사능 사고	3.78	2.63	3.87*	3.41
전염병	3.41	3.35	3.12	3.29
수질오염	54.88	50.51	40.93	48.71
대기오염	64.26**	64.74**	47.83**	58.95**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	52.59	52.33	43.69	49.54
가정 폐기물로 인한 오염	60.40	58.59	45.77	54.89
소음공해	63.87*	60.33*	47.02*	57.03*
물부족	48.68	58.46	30.68	46.06
식량 오염	3.56	58.01	36.04	49.28
인위적 문제				
경쟁력 부족	2.8	3.13**	2.92	2.95
가족건강과 사고 위험	3.11*	2.96*	3.01**	3.02
생계의 어려움	3.11*	2.73	2.95*	2.92
외로움	2.5	2.14	2.39	2.34
균형개발				
중심지 개발	2.92	2.68	2.81	2.8
도시 및 지역개발	2.99 ▽	2.82*	2.87**	2.89*
수입의 안정성				
수입과 수익	3.06**	2.99**	2.71	2.92**
고용의 기회	2.95	2.81	2.75	2.83
세금 정책	3.01*	2.54	2.84*	2.79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2.3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메가시티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지역협력기구 나 도시결연 등의 국제 연대 가입,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싱크탱

크 설립과 같은 인력 개발 등의 노력을 함.

2 4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프로파일링의 대상은 43개 도시 싱크탱크와 16개 국제기구 및 도시 연대
 - 대상 도시 싱크탱크는 대륙별로 아시아 34개소, 유럽 3개소, 미주 4개소, 아프리카 1개소로 분포
- 도시 싱크탱크
 - 싱크탱크는 초기에 정부 내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 조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독립 또는 조직 통합을 통해 기관으로 발전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는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시 정부 주도로 설립
 - 유럽과 미주의 도시 싱크탱크는 국·공립 대학 내 연구소가 다수
- 국제기구 및 도시 연대
 - 국제기구는 가난, 슬럼, 위생 등 사회 문제 해결, 지방 정부 자원 지원, 지속가능성, 압축 도시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 도시 연대는 정기 포럼 등으로 도시 간 우호를 맺는 수준의 한정적 역할
-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
 - 현 싱크탱크들의 양자 간 협력으로는 범위를 규정할 수 없는 메가시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제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도시의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으나 대다수 국제기구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최상위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싱크탱크의 역할과 상이
 - 도시 연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도시 간 우호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싱크탱크 참여의 교두보가 되어 주지만, 싱크탱크를 연대의 회원으로 하거나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지 않음
- 다자간 협력에서 서울의 역할
 - 서울은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로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8번째이며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서울의 도시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 증가
 - 고도성장 도시와 잠재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은 중요한

중간도시가 되며 협력의 주도권을 갖는 역할에 적합

2.5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싱크탱크 간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로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창립 및 포럼 개최
- 창립 회원 기관으로 싱크탱크는 서울연구원,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 호치민 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이고 국제기구 및 연대는 메트로폴리스, 시티넷, 이클레이 등 3개 기구 선정
- MeTTA는 포럼을 개최하여 회원 기관과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를 공유하고, 서울선언, 회원 기관과의 향후 교류, MeTTA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관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둬.

2.6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회원 확대 등을 통한 외연적 확장과 내부적인 운영 등 내실화를 통한 내연적 성장으로 구분
 - 외연적 확장: 현재 8개 회원 기관을 중기적으로는 현재 기관의 파트너들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도시 싱크탱크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로 확장하며, 국제기구와 지역 연대와의 협력 유지
 - 내연적 성장: 활발한 인적 교류, 회원기관 간의 공동 연구, MeTTA 독립 콘텐츠 개발, 홍보물과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 강화, 운영 재정 확보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내실화

3 정책 건의

- 아시아는 전 세계 10위권 메가시티 중 7개, 20위권 메가시티 중 14개가 있는 메가시티 집중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며, 서울은 아시아 메가시티 중 중간 도시로 도시 간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도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 전문가 집단인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로 확대된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과 비전 제시
- 창립된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 등을 공유하는 외교 활성화